



마음을 키우고 마을을 키운다

키울 협동조합은 발달장애 아동 가족농장을 운영한다. 장애아동 가족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가족농장을 운영하며 돌봄과 치유의 사회적 농업을 실현해 가고 있다. 지역의 독거노인이 농장 관리를 하는 등 서로를 돕는 협업으로 마을은 다시금 생기를 찾아간다.

소재지 키울 협동조합_ 전북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582-2(대표: 김인숙, 윤미아) 사회적 농장 지정: 2020년

장애아동 가족농장을 설립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계기가 된 것은 기관 주도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발달장애 아동은 장애 특성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생활영역이 실내로 제한됩니다. 이 아이들이 농장 활동을 하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통된 꿈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갈 곳은 보호시설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어찌면 아이들이 '흙냄새를 맡으며 생산적인 활동을 하며 살 수도 있겠다'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농장은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었는지요?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통해 2018년도 하반기부터 두레농장 중 한 곳인 비봉 평치 두레농장을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인 멘토분들과 방울토마토, 양배추, 콜라비, 고추, 감자, 오이 등을 심었는데 첫째 수확한 농산물을 완주군 로컬푸드와 완주군청 직원 식당 등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아이들 명의를 통장으로 직접 받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생산적인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2019년도에는 수익보다는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부모 역량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농장에서 나오는 수익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동으로 모금하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농장을 운영하시며 보람이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공통된 마음으로 모이기는 했지만 저희들 대부분이 농사에 경험이 없어





//
 첫째 수확한 농산물을
 완주군 로컬푸드와
 완주군청 직원 식당 등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아이들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받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생산적인 일을
 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

어려웠습니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노인 멘토님께 의지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2019년에는 농장에서 수확한 배추와 무를 가지고 김장을 했습니다. 김치를 담가 함께 나누고 독거노인과 멘토 분들께도 드렸습니다. 주중에 농장 관리를 해주시고, 주말에도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하시고, 조합 부모님들에게는 작물 재배와 관리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감사한 분들이에요. 우리도 그분들께 무언가 해드렸다는 것에 벅차고 뿌듯했습니다.

지역과의 협업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사회적 농업 활동에 있어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2동 중 1개 동은 농장으로, 다른 1개 동은 주말에 공동체 놀이 및 지역 내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수업을 진행하는데 완주군의 여러 공동체를 강사로 초빙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을 노인 멘토, 요리 강사로 초빙하여 지역민과 우리 아이들이 서로 친밀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장 운영을 통한 소망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키울 협동조합의 사회적 농업 농장에서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모여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서로에게 조언하며 위로가 되어 줍니다. 이 때문인지 참여하는 부모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부모도 함께 치유된다고 볼 수 있죠. 또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리며 아이들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고 불투명했다면 키울 협동조합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립이 키울 협동조합의 가장 큰 성과가 되길 소망합니다.

mini interview

윤미아(사회적 농업 농장 운영) 모든 게 서툴고 어려워 스스로 하려다가 두려움에 발을 뺀 적도 있고, 어떤 날엔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또 느리지만 성장하는 아이를 발견할 때마다 더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나이도 다르고 장애 특성도 모두 달라 더 많이 고민하고 구상해야 하지만 이러한 고민과 여러 방법의 시도들이 결국엔 키울 협동조합의 역량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굵은 뿌리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체험농업 치유 프로그램
 주말마다 아이들은 농장에서 흙도 만지고 작물에 물도 주고 자라는 과정을 보며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느껴요.

공동체 놀이 매주 특수치료 센터 선생님들이 개발한 협업놀이를 진행하며 농장 관리를 해주시는 노인 멘토님들과 의미 있고 즐거운 놀이로 아이들이 공동체에 적응해요.

우리 농장 키워드

요리 교실

지역 주민을 요리 강사로 초빙해 농장에서 수확한 재료로 요리하여 지역 농가 소득에 보탬을 주고 완주 로컬푸드에서 식재료를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요.

부모 역량 강화 활동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1박 2일 캠프,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을 함께해요.